

## 서울광장에 대한 시민 만족도 및 이미지 조사

- 
- |                            |                       |
|----------------------------|-----------------------|
| 1. 서울광장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평가 필요성 | 4.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
| 2. 도시광장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기능      | 5. 정책제언               |
| 3. 서울광장의 건설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    |                       |
- 

### 1. 서울광장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평가 필요성

- 1985년 유럽연합 각료회의에서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처음 제기된 이래로, 전 세계 도시는 '문화'와 '도시'의 적극적 결합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울 역시 예외가 아님. 서울시는 그동안 문화예술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거나,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거나 혹은 도심 속 자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문화도시란 시민의 일상적 삶과 도시의 공간이 '인간주의적' 정책 하에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척도이며, 또한 도시 공간의 역사성, 일상적인 도시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에 체화된 장소성, 문화 체험 및 다양한 행위와 이벤트를 창출하는 공공 인프라를 기본 조건으로 함. 따라서 공간-사람-사물의 인간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도시정책, 공공영역과 공동체의 강화, 지역 나름의 역사와 전통 창출, 다양한 문화적 행위와 이벤트의 창출 등이 문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여기서 도시인들의 사회·문화적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공공 공간인 도시광장을 주목해야 함. 그러나 광장 그 자체가 사람을 모이게 하고 활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며, 광장을 둘러싼 자연적·인공적 요소들,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도시광장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시청 앞 서울광장은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으나 정치집회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편의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의 마당인 도시 광장의 의의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문화광장으로서 기능하고자 하는 서울광장의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에서 보여준 서울광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봄으로써, 서울의 문화공간이자 상징공간이며 역사적 공간인 서울광장의 의미를 평가해보고자 함. 또한 서울광장의 문제점을 영역별로 도출해 봄으로써, 문화광장으로서의 서울광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sup>1)</sup>

## 2. 도시광장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기능

### ○ 현대 도시생활과 도시 공간의 딜레마

-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물리적 공간과 인간의 활동이 어우러지는 '장소'이며, 도시의 물리적 형태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기능 및 활동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도시인들은 도시 환경을 지각하고 체험함으로써 도시에 관한 특정한 '상징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도시에서의 체험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 ① 도시에서의 시간체험: 이는 도시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음. 도시인들은 과거 사람들의 생활 흔적과, 현재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현상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감.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상은 시간과 더불어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된 의미가 축적되어 그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성'을 창출해 냄.
  - ② 도시에서의 공간체험: 이는 역사적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공간적 지평, 즉 그 공간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장소성'과 연관됨. 도시의 각 공간이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어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지닐 때 그 공간을 장소라고 부를 수 있으며, 장소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장소성(sense of place)'이라 할 수 있음.
  - ③ 도시에서의 의미 체험: 도시인들은 도시 내에서 인체의 5감을 통하여 1차 체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됨. 이러한 1차 체험은 사람들의 가

1) 본 연구에서는 서울광장의 조성 과정과 목적, 일반적인 이용현황, 운영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2년 7월부터 2005년 1월 사이의 언론 보도 자료를 카인즈(www.kinds.or.kr) 검색을 통해 수집·분석하였고, 또 현재 서울광장을 찾고 있는 이용객들의 이용현황 및 이용만족도, 그리고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음.

치·선호·세계관 등과 같은 고도의 정신적 작용을 통하여 2차 체험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미체험임.

- 그러나 현대의 도시는 도시인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조화로운 도시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인간과 환경,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구조간의 '단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공간의 '상품화'에서 기인하며, 자본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된 공간의 확대는 의사소통의 장이자 담론의 장인 공공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음.
  - 또한 사적 공간의 확대와 공공 공간의 축소는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 소멸 현상인 '역공간(liminal space)'을 발생시킴. 역공간은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을 동일화시키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혼란시킴으로써, 도시인들의 방향성과 장소적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만듦.
  - 이처럼 현대 도시공간의 딜레마, 즉 사적 영역의 확대에 따른 공공 공간의 축소는 도시인들의 조화로운 삶을 방해하고 있음.
  - 하지만 공공 공간은 앞서 논의한 도시에서의 인간 체험, 즉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사회성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임.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환경에 공간적으로 머물면서 시간의 흐름과 정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심리적 편안함을 경험하게 됨.
  - 이를 통해 그 환경에 대한 '장소성'을 얻게 되는데, 이는 도시 환경 및 인간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도시인들은 옛것과 새것,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인공과 자연 혹은 시간·공간·스케일·생활 등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도시 환경을 요구함.
  - 특히 현대 도시 속에서 장소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건물과 외부의 공공 공간이 가급적 도로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통합되는, 공간과 공간사이를 연결하여 열린 공간을 창출하는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만드는 것임.
- 공공환경으로서 오픈스페이스와 도시광장의 사회·문화적 의미
- 오픈스페이스란 기본적으로 개방 시스템(open system)으로서 인간 행동을 한정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형태의 지원성(affordance)과 개연성(probability)을 강화하는 공간임.
  - 오픈스페이스의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변함없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즉 오픈스페이스는 시민 모두의 공공 공간으로서 시민 커뮤니케이션의 장이자, 도시 활동의 핵이며, 도시 활기의 원천으로 기능해 왔음. 또한 공공성을

가진 예술 형식으로 그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그 자체가 정보교환체이며 에너지 표출 시스템임. 즉 오픈스페이스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통합 환경의 컨텍스트 내에서 이해되어야 함.

- 다양한 오픈스페이스의 유형 중에서도 현대도시에서의 오픈스페이스는 주로 공원과 광장, 보행자용 가로가 함께 혼합되어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형태로 나타남. 특히 광장<sup>2)</sup>은 오픈스페이스의 중요한 구성인자이자,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도시 공간으로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는 공공 공간임.
- 광장의 중요한 기능은 '시민의 의식'을 응집시키고 소통시키는 장을 제공한다는 데 있음. 광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만남,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거실이자 마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며, 시민들의 만남과 행사 등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공 공간의 기능을 갖추어야만 함.
- 이상에서 살펴본 현대 도시 광장의 기능 및 의의를 종합해보면 첫째, 도시 광장은 휴식과 만남, 담화를 즐기는 공간이며 둘째, 광장은 행사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놀이터이자 축제의 공간이며 셋째, 광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의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공간으로서 정치적인 공간 혹은 여론 형성의 장이며 넷째, 광장은 힘과 권력 표현의 공간임.
- 위에서 언급한 광장의 기능 및 의의가 공간 활용에 관한 부분이라면, 공간적 의미에 따른 의의 역시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음.
  - 첫째, 광장은 '중심 공간'으로서, 도시인들은 그 곳에서 도시의 중심성을 느끼고, 공동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음. 광장은 도시인들의 외부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안에서 도시인들은 각자의 자아를 드러내 보일 수도 있음.
  - 둘째, 광장은 '비워진 공간'으로서, 사람과 행위의 채움을 유발함. 이러한 광장은 개방성과 평등성, 자유성을 강조함.
  - 셋째, 광장은 '상징적 공간'으로, 도시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상징성을 지님. 국가의 중대한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며 종교적·정치적 활동의 장이기도 한 광장은 암묵적으로는 도시인들의 문화와 규범을 형성하는 곳임.

2) 광장은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square, plaza, piazza, place 등으로 통용되고 있음. Webster 사전에서는 광장을 plaza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광장은 도시나 촌락의 공공을 위한 넓은 공간(public square) 또는 개방 공간(open space)으로 시장과 같은 것을 의미함. 즉 광장이란 도시나 집락들의 형상과 그 사회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는 일정 이상의 넓이를 가진 공간을 말함.

### 3. 서울광장의 건설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

#### ○ 서울광장의 조성배경 및 건설과정

- 본래 시청 앞 광장은 국가의 상징 가로 계획의 하나로 서울의 중심적이며, 상징적인 장소로 다루어져 왔음. 무엇보다 시청 앞 광장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모임과 행위가 이루어졌던 공공의 커뮤니케이션 장이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공의 광장이었음.
- 또한 시청 앞 광장은 지리적·공간적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중심공간임. 시청 앞 광장은 북측으로 북악산, 남측으로 남산, 동측으로는 용마산, 서측으로는 안산에 둘러싸인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시청 일대는 주변에 역사·문화자원들이 산재한 문화적·역사적 장소임.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세종로를 기점으로 정동극장, 세실극장,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로댕 갤러리 등의 전시·문화시설이 풍부함. 덕수궁, 원구단 등과 같은 문화재 역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덕수궁의 문화 이벤트 및 전시 활동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처럼 시청 앞 광장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의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 및 문화자원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이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만남이 있었던 사회적 공간이기도 함.
- 따라서 서울시 시청 앞 거리조성 및 광장조성에 관한 안은 1983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1996년 이후부터는 보행자 위주의 도시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 등으로 인하여 보행광장으로서의 성격이 형성되었음. 그러던 중 2002년 '서울 시청 앞 광장 조성에 관한 안'이 서울시의 주요 시책으로 설정되면서, 광장 조성이 현실화되어 2004년 5월에 서울광장으로 개장하게 되었음.

#### ○ 서울광장의 일반적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서울광장 조성에는 도시계획·조형, 역사·문화, 교통과 관련된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소속원 등 3개 분야 16명의 위원이 기본계획부터 참여했으며, 총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그 결과 총 3천 800평 규모의 잔디광장이 조성되었음.
- 광장의 전체 형상은 타원형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화합을 상징하는 대청마루에 평화를 상징하는 둥근 보름달이 걸려있는 모습으로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함. 또한 광장은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최소화해 '비어 있는' 공간, 즉 도시의 여

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걷고 휴식하거나 이벤트가 벌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음.

- 서울시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광장이 개장한 2004년 '하이 서울 페스티벌' 기간에만 약 40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찾았으며, 개장 10일 만에 약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했음. 또한 서울광장이 개장한 100일째였던 8월 10일을 기점으로 광장 이용객이 439만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하루 평균 4만 7천명이 서울광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광장에서는 제2회 '하이 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기점으로 광장 음악회, 빛의 축제, 퍼레이드, 왕궁수문장 교대행렬, 이동미술관, 가족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연중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집회 및 캠페인 역시 열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존재함.
- 무엇보다 5월에서 11월 사이, 서울광장에서 전개된 다양한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인데, 특히 서울문화재단이 서울광장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기획·실시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한 공연을 비롯하여 매달 풍부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 행사에서 락공연, 대중음악공연, 재즈공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행사가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이 주최가 되어 이루어졌음.
- 그 밖에 서울광장에서는 TV 촬영,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2004년 12월 이후부터는 스케이트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음.
-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행사 유형별 및 주최별 편중현상임. 광장 운영 프로그램 유형 중 문화공연이, 그리고 행사 주최로서는 서울문화재단이 전체 행사 비중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광장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행위를 유발하기 보다는, 문화·예술 공연의 소극적인 관람자로 머물게 하고 있어, '시민광장' 혹은 '문화광장'으로서의 서울광장의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음.
- 서울광장의 운영상 문제점은 많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서울광장 조례'에 관한 사항임. 현재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다수 시민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광장 사용에 대해서는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며, 광장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광장 사용자는 1㎡당 1시간에 10원의 사용료를 시에 지급하고, 잔디 및 시설물이 손상됐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집회나 시위 공간으로 광장이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인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측의 입장과 서울시의 광장이용방침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

- 그 밖에 많은 이용객이 서울광장에 집중되면서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광장의 위생관리 및 안전부분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음. 더불어 잔디광장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문제도 서울광장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잔디 훼손을 우려한 출입통제, 매주 월요일마다 실행되는 잔디휴일, 겨울철 잔디광장 출입통제 등이 광장 이용 시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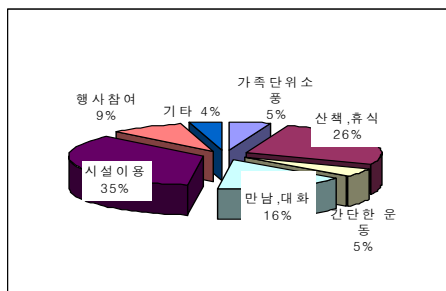
#### 4.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sup>3)</sup>

##### ○ 서울광장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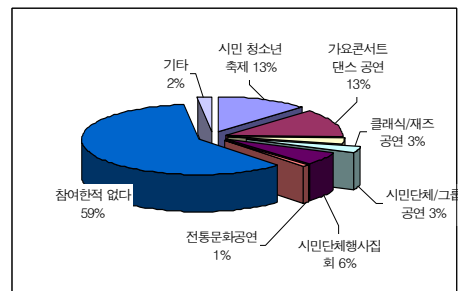
- 시민광장을 이용하는 빈도 조사에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1%의 응답자가 '가끔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지나지 않아 서울광장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이는 서울광장 이용행태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기보다는 일회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서울광장 이용률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름·가을 시즌에 서울광장을 찾는 이용객들과 겨울철 서울광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따라서 일상적인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서 서울광장 이용이 계절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사실은 광장 이용 계절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주로 이용하는 계절에 관한 질문에서 51%가 겨울철에 광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22%가 6월~8월에, 17%가 9월~11월에 서울광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음.
- 또한 서울광장 이용 요일 및 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말 이용이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중이 29%, 공휴일이 5%로 나타나 평일 이용객보다는 주말 이용객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용시간대는 오후 2시~6시 이용이 62%로 1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저녁 6시~8시가 18%, 점심시간대인 12시~2시가 15%, 오전 9시~12시가 3%, 그리고 야간 8시~12시가 2%로 나타났음.

3) 본 장에서는 2005년 1월 17일에서 23일까지 약 1주일간 서울광장에서 104명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음. 조사대상자들 중 44.1%가 남성, 55.9%가 여성이었고, 또한 조사대상자들 중 10대가 28.4%, 20대가 44.1%, 30대가 21.6%, 40대 이상이 5.9%였음.

- 광장 이용 시 머무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약 1시간 정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2~3시간이 38.2%, 30분이 13.7%로 나타나 3시간 이하로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음. 2~3시간 이용객이 38.2%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서울 광장이 단순히 목적지를 향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르는 통로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지닌 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음.
- 서울광장 이용 목적에 관한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설 이용'이라고 응답했음. 스케이트장 이용객이 겨울철 서울광장 방문객의 주를 이루면서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이어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26%, '만남이나 대화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6%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용목적에 관한 응답에서 드러나는 연령별 차이임. 10대의 경우 과반수를 넘는 55.2%가 '시설이용'이라고 응답한 반면, 20대는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3.3%를 차지했음.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광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광장을 찾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음.



[그림 1] 서울광장 이용목적(%)



[그림 2] 서울광장 행사 참여 현황(%)

-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경험을 묻는 질문에, 59%의 응답자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음. 하지만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중가요 콘서트 및 댄스 공연과 시민·청소년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13%에 해당해 대중문화공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중에서 10대의 경우, 다른 행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축제 참여 경험이 가장 많았고, 20대의 경우에는 축제와 시민단체 집회에, 30대는 대중가요 콘서트에, 40대는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높았음.
- 또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각종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앞선 응답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30%가 시민·청소년 축제와 대중



가요 콘서트를 꼽았으며, 그 밖에 시민단체 및 시민그룹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6% 있었음.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행사가 없다고 응답해,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던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서울광장은 계절별 이용현황 및 이용행태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 점을 고려해야 함.

○ 서울광장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 서울광장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하나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임.
- 우선,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174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의 접근성'(3.745), '광장의 안전성'(3.372), '시설의 청결'(3.362), '개방시간'(3.274), '횡단보도'(3.254), '시설의 미관'(3.068), '주변경관'(3.058), '다양한 활동공간'(3.009), '편의시설'(2.431)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광장 이용객들의 응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불만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광장 편의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용객은 10.8%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용객은 56.8%에 달하였음.
- 또한 광장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이용객들도 29.4%나 존재했음. 광장의 개방시간이나 청결에 관한 부분에서도, 개방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7.7%, 광장시설이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4.7%로 나타났음.
-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135의 만족도로 나타났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절별 프로그램'(3.794),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3.049), '연령별 프로그램'(3.029), '다양성 및 재미'(2.882), '정보 및 안내시설'(2.598)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평균 수준의 만족도를 보일 뿐 그다지 높은 수준의 만족도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1%, 정보 및 안내시설의 부족을 지적한 응답자가 42%로 상당부분의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음. 그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흥미의 부분에서 25%의 응답자가, 계절별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23%의 응답자가,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에서도 15%의 응답자가 불만족을 드러냈음.

-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서울광장에 대한 이미지 부분 중 우선,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색과 산책을 즐기는 공간'으로서 서울광장을 인식하는 정도가 3.431로 가장 높았음. 또한 '축제 및 문화·예술 공간'(3.254)이자,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만남의 공간'(3.186)이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3.186)로서 서울광장을 인식하는 정도도 높았음.
- 반면 서울광장이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공간'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알리는 공론의 장'이라는 인식 또한 낮게 나타났음.
- 이러한 조사 결과를 앞서 논의한 광장 내 프로그램 진행 현황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서울광장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보다 많이 쓰이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공간으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에 대한 바람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광장시설이 보다 세분화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용객이 37.3%로 가장 많았고, '문화전시회 및 공연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7.5%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음.
- 광장시설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광장 내 화장실, 식수대, 벤치,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음. 흥미로운 점은 문화전시회 및 공연의 다양화를 개선점으로 꼽았다는 것인데, 그간 진행되어온 광장 내 문화행사 혹은 프로그램의 규모 및 횟수를 생각해본다면 더욱 그러함.
- 이는 지금껏 진행되어온 문화행사가 시민 혹은 이용객들의 욕구와 바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입증함. 전반적으로 서울광장의 편의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보안에 관한 욕구와 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참여기회 확대에 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바람과 욕구는 향후 서울광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용객들의 제안에서도 드러나는데, '서울광장이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그리고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용객이 19.6%,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문화·역사 체험 공간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8.6%, '다양한 문화이벤트나 축제, 야외 전시회 및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7.6%로 나타났음.
- 그 밖에도 청소년 등의 일반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열린 문화공연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8%,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교류와 캠페인이 진행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로 나타났음.

- 이 중에서 특히 '서울광장이 향후 문화역사 체험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용객들이 1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서울광장에 대한 기존 인식 혹은 이미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사항임. 즉 기존 인식 혹은 이미지에서는 서울광장이 서울시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낮았던 반면에, 향후 서울광장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징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답하고 있음. 따라서 상징공간으로서 서울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5. 정책제언

- 도시 광장은 도시 시민들에게 다양한 도시 경험, 즉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사회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한 도시의 정체성과 공공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함. 서울광장 역시 그러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광장 조성 이후 그 광장을 채우게 될 실질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이므로, 사람들이 광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임.
- 서울광장 이용행태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혹은 일상적인 문화공간으로의 재배치가 요구됨. 따라서 시설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이미지의 네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함.
- 첫째, 시설 및 관리의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편의시설 부분임. 산책과 휴식 혹은 만남과 대화를 위해 서울광장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이 편의시설 부족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화장실, 쓰레기통, 벤치, 식수대,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둘째, 광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재배치하고, 각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과 대상층을 명확히 하는 일임. 광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걸맞게 보다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서울광장 운영 및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광장을 참된 '시민광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임.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서울광장의 조성목적 및 운영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함. 서울광장 이용 자격 및 제한 근거는 명확한 규칙 하에 일관성을 지녀야 하고, 시민들의 합의된 기준 하에 운영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서울광장을 '시민광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하기 위한 시도가 요구됨. 서울광장은 애초 조성의도에 상정한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단지 공원과 같은 '쉼터'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광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민참여 기획단 구성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성동규 | 중앙대 교수  
02-820-5513  
[dk Sung@cau.ac.kr](mailto:dk Sung@cau.ac.kr)